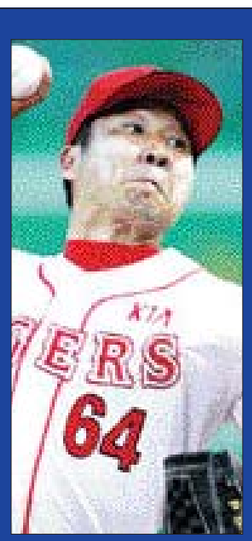
사계절 당신과 함께하는 골프명소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힘펑 나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광주 - 동광평IC 구간 광역 동행료 환불
(탈절 동광평IC 영수증 프론트 제시)
우천시 9홀 이후 홀별요금정산제 실시
예약 : www.hpdynasty.co.kr 080) 320-7700

'MVP' 김광현

'신인왕' 최형우

'뜨고'


'은퇴' 정민태

'폭행' 정수근

'지고'

김광현 다승 1위 탈삼진 왕 올림픽 금 '별중의 별'

2008 시즌 결산 <5> 뜬 별 진 별

2008시즌에도 녹색 그라운드는 8개 구단 선수들의 움직임으로 뜨거웠다. 땀과 눈물이 뒤섞인 경쟁 속에서 '샛별'로 떠오른 이도 있고, 아쉬움 속에 그라운드를 떠난 선수도 있다.

올 시즌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이는 6일 2008시즌 MVP에 오른 김광현(SK)이다.

김광현은 지난해 3승7패에 그치며 김현수와 임태훈에 밀려 신인왕 경쟁에 명함도 내밀지 못했지만 올 시즌 16승으로 다승 1위에 올랐고, 탈삼진왕(150개)도 차지했다.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일본 킬러'로 나서 우리나라 첫 야구 금메달을 이끌었다.

팀의 한국시리즈 우승까지 조력한 김광현은 기세를 몰아 6일 열린 2008년 프로야구 기자단 MVP 투표에서 전체 94표 중 51표를 획득하며 '별중의 별'로 등극, 2천 만원 상당의 순금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김광현의 아성에 밀려 MVP 투표에서 27표를 얻는데 그친 김현수도 2008시즌을 밝게 빛낸 별이다.

지난해 0.273의 타율로 신인왕 후보에 오르며 '연습생 신화'의 서막을 알렸던 김현수는 올 시즌 0.357의 타율을 바탕으로 안타·출루율에서도 1위를 차지하며 타격 3관왕에 올랐다. 한국시리즈에서 21타수 1안타로 부진, 김광현과의 MVP 경쟁이 싱겁게 끝나버리기는 했지만 김현수는 정규리그와 올림픽에서 알토란 같은 활약으로 '타격의 달인' 탄생을 알렸다.

김광현의 투수 3관왕을 저지한 평균자책점왕 윤석민은 김태균(한화·8표), 가르시아(롯데·5표)에 이어 3표를 얻는데 만

김현수 '타격의 달인' 영예

최단신 김선빈도 스타덤에

정수근 무기한 실격 중징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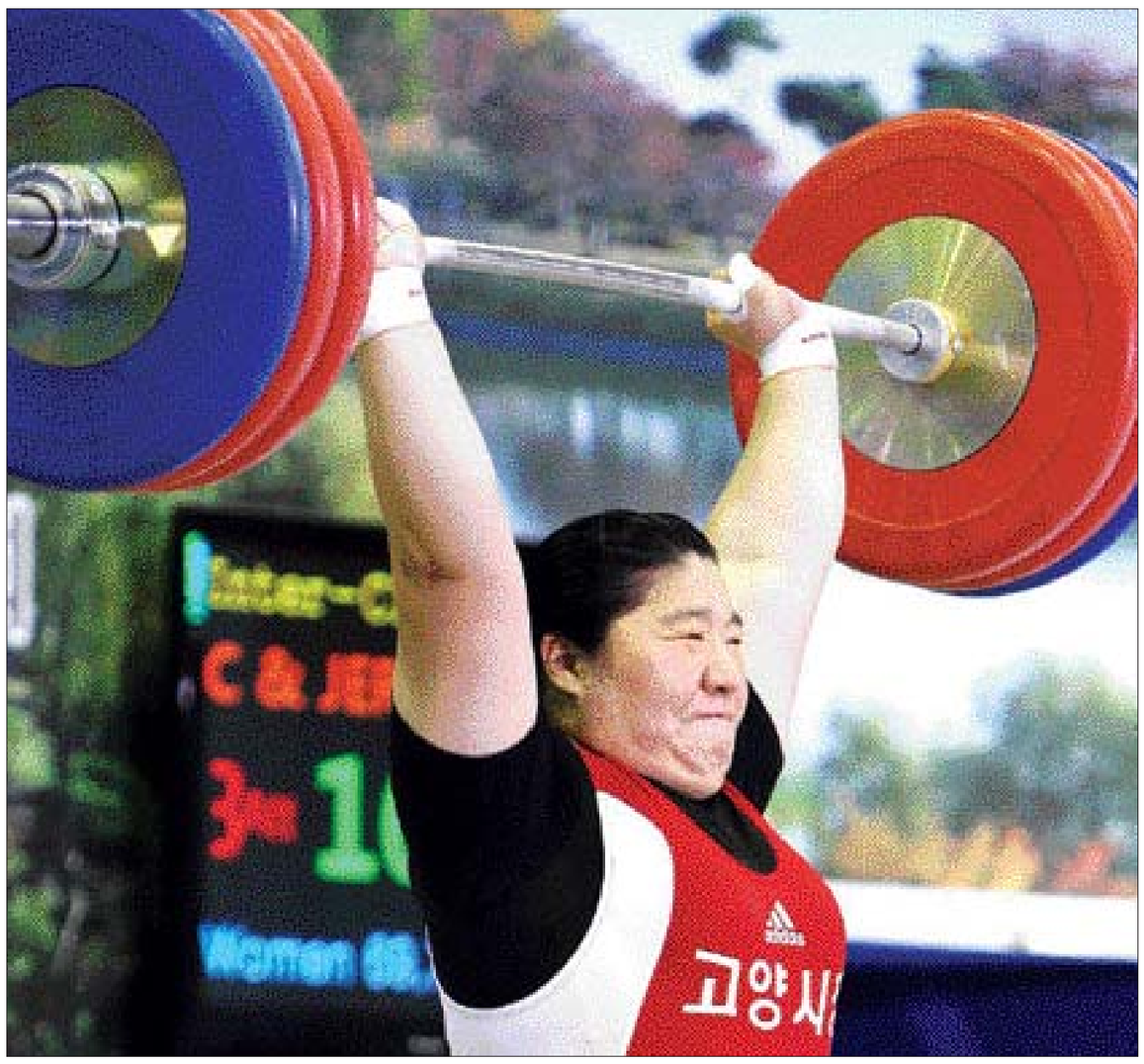
족했지만 기막힌 반전의 주인공이 됐다. 윤석민은 지난해 3.78의 평균자책점을 가지고도 최다패(18패)를 기록해 '불운의 에이스'로 불렸지만 올 시즌 14승을 챙기며 다승 2위에 올랐다. 평균자책점(2.33)에서는 1위의 영예를 안았다. 반전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올림픽 대표팀 탈락 논란의 중심에 섰던 윤석민은 최종 엔트리 마감을 앞두고 기적적으로 대표팀에 합류한 뒤 '올림픽 영웅'이 됐다.

윤석민의 입단 동기 이범석(KIA)도 샛별처럼 등장했다. '무명'의 이범석은 5월7일 삼성 타선을 6이닝 동안 꽁꽁 묶으며 프로데뷔 4년만에 첫 승을 신고한 뒤 3.08의 평균자책점으로 7승 고지에 올랐다. 7월4일 삼성전에서는 아웃카운트 하나가 부족해 노히트 노런을 놓치는 등 눈부신 투구로 '강속구 군단'의 계보를 이었다. 25세 중고 신인 최형우(삼성)도 올 시즌을 빛낸 선수다. 2002년 삼성에 입단 한 뒤 퇴출과 재입단의 굴곡을 겪은 최형우는 6일 투표에서 76표를 얻어 역대 최고령 신인왕에 올라 6년 무명의 설움을 털어냈다. 규정타석 미달로 7표를 얻는데 그친 김선빈(KIA)도 프로 최단신(164㎝)이라는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데뷔 첫해 주전 유격수를 꿰차며 스타덤에 올랐다.

쓸쓸히 사라진 별도 있었다. '부산 갈매기'의 돌풍이 거셌던 올 시즌 롯데 주장 정수근은 지난 7월 음주 폭행사건에 연루돼 한국야구위원회(KBO)로 부터 '무기한 실격'이라는 중징계를 받으며 그라운드에서 쫓겨났다.

'마지막 20승' 투수 정민태도 그라운드를 떠났다. 우여곡절끝에 올 시즌 KIA 유니폼으로 갈아입었던 정민태는 통산 124승(96패), 2번의 한국시리즈 MVP, 한국시리즈 제패 4회라는 기록을 남긴채 7월8일 은퇴를 선언했다. 선발투수로 재기를 노렸던 정민태는 그 꿈을 이루지 못한 채 마운드를 내려와 팬들에게 아쉬움을 남겼지만 내년부터는 히어로즈 투수 코치로 제 2의 야구 인생을 시작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장미란이 6일 오후 고양시 고양꽃전시관에서 열린 '2008 고양아시아클럽역도선수권대회' 여자부 +75kg급 용상 경기에서 160 kg을 들어 올리고 있다. /연합뉴스

장미란 '독무대'…가볍게 3관왕

+75kg급 인상·용상·합계 金

2위 수샛 보다 50kg 더 들어

■ 아시아클럽역도선수권

'여자 헤라클레스' 장미란(25·고양시청)이 2008 아시아클럽역도선수권대회에서 쑥스러운 3관왕을 차지했다.

장미란은 6일 경기도 고양시 고양꽃전시관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날 여자부 최중량급(+75kg) 경기에서 인상 120kg 용상 160kg을 들어올려 합계 280kg으로 세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최대 맞수 무솽솽(24·중국)이 불참해 마땅한 적수가 없었던 장미란은 합계 230kg을 기록한 2위 수샛(태국)과는 50kg 차로 가볍게 정상에 올랐다.

그러나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 자신이 낸 세계기록(인상 140kg, 용상 186kg, 합계 326kg)에 비해 크게 모자라는 무게다.

지난달 13일 전국체전에 출전하고나서 25일만에 플랫폼에 오른 인상에서 한참을 대기한 뒤 마지막으로 출전했다.

장미란은 인상 1차 시기에서 120kg을 가볍게 들며 컨디션을 조절한 뒤 인상 2차 시기에서 지난달 13일 전국체전에서도 자신이 들었던 120kg도 무난하게 성공했다.

하지만 3차 시기는 125kg의 바벨을 드는 과정에서 균형을 잡지 못해 앞으로 바벨을 떨어뜨리면서 실패로 끝이 났다. 수샛은 인상 105kg으로 2위를 차지했다.

장미란은 인상에서 부진을 만회하려는 듯 용상에서 더욱 힘을 냈다.

장미란은 용상에서 2위와 격차를 일찌감치 크게 벌리며 용상, 합계 우승도 조기에 확정했다.

마지막으로 플랫폼에 나온 장미란은 용상 1차시기에서 애초 신청했던 145kg보다 5kg 낮은 140kg에 도전해 성공했다.

기세가 오른 장미란은 2차 시기에서 150kg을 들어 전국체전(145kg)보다 5kg을 더 늘렸다.

장미란은 마지막 용상 3차 시기에서 다시 10kg이나 더 나가는 160kg을 신청했고 잠시 숨을 고른 뒤 머리 위까지 바벨을 번쩍 들었다.

성적에 만족스러운 듯 3차 시기를 끝낸 뒤 오른손을 흔들어 답례하기도 했다. 몽골의 TS.아리운자르갈은 인상 75kg 용상 105kg 합계 180kg으로 3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장미란 올림픽 기록 경이적" 국제역도연맹 극찬

국제역도연맹(IWF)이 '여자 헤라클레스' 장미란(25·고양시청)을 공개적으로 극찬했다.

IWF는 6일(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에 실린 공식잡지 '월드 웨이트리프팅'를 통해 타마스 아얀 IWF 회장의 인터뷰를 인용하며 "장미란은 모든 역도 선수들 가운데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라고 밝혔다.

IWF는 이어 "장미란이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 세운 세계기록은 정말로 경이적인 기록이었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장미란은 베이징올림픽 당시 여자 최중량급(+75kg) 경기에 출전해 인상 140kg에 용상 186kg으로 합계 326kg을 들어 올리면서 세계신기록을 다섯 차례나 작성했다.

IWF는 또 "올림픽 여자부와 남자부에서 모두 금메달을 획득한 한국의 성과에 대해 칭찬을 하고 싶다"면서 한국 역도 대표팀의 실력도 높이 평가했다.

이와 함께 IWF는 베이징올림픽 역도에서 초강세를 보였던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 역도의 수준은 세계에도 널리 알려져 있다. 중국 선수들은 주요 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베이징올림픽에서 자국 선수 4명이 나간 여자 4체급을 모두 석권했고 남자부에서는 사재혁(23·강원도청)이 금메달을 딴 77kg급만을 빼고 금메달 4개, 은메달 1개를 따냈다.

/연합뉴스

야구, 오바마 덕에 올림픽 복귀 될까?

'오바마 텃밭' 시카고서

2016년 올림픽 유치땐

정식종목 채택 가능성

미국 역사를 뒤흔든 버락 오바마의 대통령 당선이 야구가 올림픽 정식종목 복귀에 영향을 끼칠까.

다소 뜬금없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찬찬히 뜯어보면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미국 메이저리그 공식 웹사이트인 MLB닷컴은 6일(한국시간) 오바마가 제44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내년에 야구계가 어떤 영향을 받을 지를 예상했다.

여느 미 대통령이 그래 왔듯 오바마도 내년 4월 메이저리그 특정 팀의 개막경기 중 한 곳에서 시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장소는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홈 경기가 될 가능성이 가장 커 보인다. 시카고는 오바마의 상원의원 지역구로 오바마는 2005년 시카고 화이트삭스 홈경기에서 시구를 한 적도 있다.

물론 올해 월드시리즈 챔피언인 필라델피아 필리스가 워싱턴 내셔널스와 워싱턴에서 처음 갖는 경기가 시구 장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느 경기건 간에 어느 미국 대통령보다 주목을 받는 오바마의 시구는 야구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을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다 2016년 하계올림픽 개최지와 정식종목 결정을 위한 투표가 내년 10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다는 점도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정식종목에서 제외된 야구가 2016년 정식종목으로 복귀할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이 1996년 애틀랜타대회 이후 20년만에 올림픽 개최를 원하는데다 후보 도시가 다름 아닌 시카고인 만큼 많은 시카고올림픽유치위 등 미국내 스포츠 관계자들은 오바마가 내년 IOC총회가 열리는 코펜하겐을 방문해 시카고가 개최지로 선정되는 데 '혁혁한'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P통신 등 해외언론도 이날 오바마 당선이 2016년 하계올림픽 개최지 선정을 놓고 그의 정치적 고향인 시카고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일제히 전망했다. 대신 경쟁도시인 일본 도쿄와 스페인 마드리드 등에는 악재로 작용할 거라는 것이다.

만약 시카고가 2016년 하계올림픽 개최지로 결정된다면 야구가 정식종목으로 복귀할 가능성은 그만큼 커진다는 게 국제 야구계의 시각이자 '희망사항'이다.

다른 분야와 같이 야구계에도 '오바마 효과'가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전남 태권도 '막강'

코리아오픈 태권도대회

중·고등부 금 7개 획득

전남 선수단이 제4회 코리아오픈 태권도대회에서 7개의 금메달을 획득하며 선전을 펼쳤다.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경기도 수원시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4회 코리아 오픈 국제태권도대회'에서 전남은 7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남자중등부에서는 주혁진(여천중·페더급), 이주한(여천중·웰터급), 이병진(여천중·헤비급)이 금메달을 획득했고, 조우주(전남체중·헤비급)와 강보라(전남체중·밴턴급)는 여자중등부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나규호(전남체고·미들급)는 남자고등부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정서리(전남체고·미들급)는 여자고등부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한편 세계37개국 1천200명 선수가 참가해 경쟁을 펼친 이번대회에 조영기 전남태권도협회 회장이 조직위원장을 맡아 성공리에 대회를 마쳐 전남태권도협회의 위상을 높였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